어린이 책꽂이

▲세상을 감동시킨 위대한 글벌레들 2=바르고 진실된 세상을 그려내기 위해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마음을 다해 글을 쓴 위인 7명의 이야기.

개화된 세상을 알리기 위해 기행문을 쓴 유길준, 희곡으로 대중들을 울리고 웃긴 세익스피어 등을 다뤘다.

〈뜨인돌·9천원〉

▲류와새=한편의 아름다운 동화를 읽으며 한자의 뜻과 모양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그림책.

중국 소년 류는 별과 막대기, 나무, 발자국이 가리켜 주는 길을 따라 여행을 한다.

〈주니어랜덤·9천원〉

▲화룡소의 비구름=고전 '관동별곡'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맛깔스럽게 풀어냈다.

주인공이 어려운 과제를 부여받고 그 문제를 하나 하나 풀어가는 구성이 긴장감을 준다.

〈한겨레아이들·8천원〉

▲천상의 선율을 담은 모차르트=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세상에 빛이 된 인물들의 이야기.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의 삶과 예술세계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주니어 김영사·8천500원〉

▲거울나라의 앨리스=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작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리델 자매의 작품.

천진난만한 상상과 유쾌한 웃음을 만날 수 있다.

〈웅진주니어·1만2천원〉

동물들도 희로애락 감정 있다

즐거움, 진화가 준… 조너선 밸컴 지음

동물들이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인간은 동물을 향해 함부로 던지던 돌을 거둬야 할 것이다.

조너선 밸컴의 '즐거움, 진화가 준 최고의 선물(원제 Pleasurable Kingdom)'은 쾌락과 진화의 관계를 파헤친다. 서로 몸을 비비고 꼬리를 흔드는 아무 의미없는 것처럼 보였던 동물들의 행동이 실은 쾌락을 좇는 행위이며, 진화를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밝히는 동물 감정 보고서다.

고양이는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어두운 곳에서 먹이를 찾기보다는 차라리 햇볕 쬐기를 선택한다. 먹이를 잡기 위해 벌여야 할 번거로움 보다는 차라리 굶더라도 즐기겠다는 것이다.

기니피그의 어미와 새끼를 서로 떼어 놓으면 이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뇌 부위의 변화는 사람이 슬픔을 경험하는 뇌 부위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진다. 동물들이 즐거움을 찾듯 슬픔과 그리움의 감정도 느낀다는 증명이다.

붉은털원숭이는 무리의 다른 원숭이에게 전기충격을 가할 때마다 자신이 받게 되는 먹이를 거부했다. 고통스러운 다른 동물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게 그리 썩 즐겁지 않기 때문이다. 상처 입은 쥐는 순수한 물보다는 고통을 줄이는 약 성분이 포함된 쓴맛의 물을 찾는다.

곤충들도 마찬가지다. 전기 자극을 주는 판 위에 올려놓으면 고통을 느끼고, 마약 성분을 투여한 곤충이 더 오래 버틴다.

즐거움의 극치를 느끼는 표정과 행동도 인간과 비슷하다. 동물원 우리를 벗어난 코뿔소는 발길질을 하고 뒷다리로 우뚝 선다. 석탄을 운반하다 탄광에서 빠져나온 노새는 미친 듯 날뛰며 햇살을 반긴다. 응원하던 축구팀이 역전골을 터뜨렸을 때 인간이 보이는 환호와 함성처럼 말이다.

앵무새는 계단 손잡이를 타고 내려가다 끄트머리에서 꽉 붙잡고 아슬아슬하게 멈추는 놀이를 하고, 알래스카 물소는 얼음을 지치며 논다.

동물이 감정을 느끼고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들이 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고릴라는 번식 이외의 성을 즐긴다. 박쥐, 해마, 고래 등 최소한 300종의 포유류가 동성애를 한다.

호모 사피엔스의 전유물일 것처럼 여겨지던 즐거움은 동물들이 자연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동물들이 계속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번식을 돋는 행동을 지향하도록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생존과 즐거움이 서로 공존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파리, 금붕어 등 동물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경이로운 연구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재미다.

〈도솔·1만4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털을 쓰다듬어 주면 짧은꼬리원숭이 새끼의 뇌에서 즐거움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분비된다.

작가와 함께하는 책읽기

플로베르의 '감정교육'

하늘색의 고풍스런 표지, 장편소설답지 않게 과학적인(?) 제목에 이끌려 '감정교육'을 샀다. 내 감정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던 시절, 서른에서 마흔으로 넘어가는 무렵에 서울의 교보문고에서였다. 나는 내 서가에 꽂힌 책이 어디서 언제 내 손에 들어왔는지를 거의 기억한다. 기억력이 좋아서라기보다 성인이 되어 내 지갑을 열어 구입한 책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집에 온 손님들이 나의 황량한 지식살림에 놀라며 "작가인데 책이 왜 이것밖에 없느냐"고 물을 때 내가 늘 하는 대답이 "역마살이 끼어서"이다. 이사가 잦은데다 집이 좁아 책을 쌓아둘 곳이 모자랐다.

새옷을 사고 싶어도 장롱이 한 짝 밖에 없어서 수납공간을 걱정해 쇼핑을 자제했듯이, 나는 새책 사기를 꺼렸다. 사더라도 웬만한 책들은 읽자마자 버리거나 남을 주었다. 그래서 나중에 서평을 쓰거나 참고자료가 필요할 때 막상 내 곁에 없어서, 내가 버린 책을 다시 돈을 주고 사는 망측한 일도 여러 번 경험했다.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겪고도 이사를 앞두고 제일 먼저 줄이는 짐이 소설 나부랭이다. 전자제품이든 옷이든 책이든 이삿날에는 똑같은 짐일 뿐이다. 그렇다고 내가 책에 담긴 지식 전체를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니다. 천만에. 소중한 물건이니까 함부로 사지 않고,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했으니 버리는 것이다.

남자의 내면 세계 확실히 파헤쳐

최근 몇 년 동안 내게 걸려, 검은색 연필로 줄이 쳐지고 포스트-잇이 가장 많이 붙은 책 중에 하나가 플로베르의 '감정교육'이다.

'한 사물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단 하나뿐'임을 강조했던 사실주의의 대가답게 간결한 제목이 시사하듯이, 작가의 분신인 프레데리크가 성장하며 겪는 감정의 변천이 이 소설의 주제이다.

지방출신의 젊은 청년이 파리에 올라와 1840년부터 1868년까지 프랑스 역사의 격변기에 별로 하는 일없이 사교계를 드나들며, 시골 부르주아의 아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신분의 (귀족부인과 고급 창부를 망라하는) 여성들과 교제하며 일어나는 미주알 고주알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애와 결혼에도 실패한 헛된 청춘이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좌충우돌 끝에 그의 '감정'만은 확실하게 교육받는 이야기가 냉정한 필체로 펼쳐진다. 이 소설의 묘미는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를 (실제 플로베르의 부친은 루앙의 병원 외과과장이었다) 연상케 하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섬세한 묘사에 있다.

의사인 아버지가 인간의 몸을 해부했다면, 소설가인 아들은 인간의 감정을 해부하는데 그의 인생을 바쳤다. 소설처럼 그의 연애도 모두 실패로 끝났고, 59세에 뇌일혈로 사망할 때까지 한번도 결혼하지 않았다.

플로베르의 문장 하나하나에는 보통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정열이 소모되었다.

발자크처럼 그도 목숨을 바쳐 글을 쓴 작가였다. 과연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 묻기 전에 먼저 책을 보시라. 남자의, 인간 남자의 내면에 대해 이보다 더 확실하게 파헤친 글을- 소설이든 에세이든- 나는 보지 못했다. 젊은 여성들에게 그래서 이 책을 권한다. 남자를 알려거든, 사귀는 그이의 감정이 궁금하거든 '감정교육'을 학습하시기를.

〈최영미·시인〉

소설속 연애·질투 등 인간의 본성 분석

보바리의 남자… 바래시외 1인 지음

워싱턴대 심리학과 데이비드 바래시 교수와 생물학·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딸 나넬 바래시가 함께 쓴 '보바리의 남자 오셀로의 여자'는 유명 소설 속 주인공을 통해 연애, 질투, 간통 등 인간의 본성에 관한 생물학적 분석을 다룬 책이다.

책은 출간된지 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읽히고 있는 '오셀로'를 비롯한 세익스피어의 작품과 '엠마' 등 제인 오스틴의 소설, 하디의 '테스'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안나 카레리나' 등 익숙한 문학 작품 속 주인공들의 삶을 추적하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저자는 아내 데스데모나를 죽인 오셀로의 질투가, 사랑을 찾아 헤멘 마담 보바리의 간통이, 형제 보다 진했던 삼총사의 우정이, 시대를 넘어 보편성을 갖고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주인공들이 인간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본성을 대변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이언스 북스·1만8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내 최고 법률회사의 뒷 이야기들 모아

…김앤장 임종인·장화식 지음

삼성 에버랜드 편법 증여 사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등 굵직한 '사건' 뒤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회사 '김앤장'이 있었다.

1년 매출액이 3천 500억원을 넘나들지만 변변한 간판 하나 없는 곳, 대표 변호사가 1년에 60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김앤장'은 과연 어떤 곳일까.

론스타의 외환은행 블법 인수건을 파고 들었던 국회의원 임종인과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출신 장화식이 함께 쓴 '법률 사무소 김앤장'은 각종 자료·통계 등을 분석, 최고 법률회사의 이면을 파헤친 책이다.

책에 따르면 총 1천500명이 일하고 있는 김앤장에는 법조계와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이 60여명에 달한다. 저자들은 김앤장이 영향력을 갖게 된 배경에는 '투기 자본-법률 엘리트-정부 관료'의 이른바 '철의 삼각동맹'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김앤장의 자정 노력과 법 개정 등을 통한 견제를 주장한다.

〈후마니타스·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보부동산컨설팅
☎(代)261-8949 핸 011-602-2233
(신수동 543-51(두암타운입구 삼거리)
토지매매
건물매매
급매 고시원매매
주유소및 부지매매
※주유소, 충전소, 물건다량보유, 물건접수환영
※원룸, 고시원 물건다량보유 상담요

상무랜드공인중개사
☎(代)383-5221 핸 011-609-5221
(구상무대 정문)
◉건물
◉토지
◉모텔,호텔매매
★양도세문제 부동산 교환 상담환영★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062)973-9174, 016-757-8800
수완택지지구 200평
첨단지구 500평 200평
건물 28억 (보4억 월2000만원)
골프 연습장 (광주)
주유소 부지
공장부지 (담양 2천~8천평)
분양·임대
첨단중앙메디칼센타
(2008년 2월 준공)
1층 53평 58평 40평 편의시설
2~6층 각166평 병.의원
7층 70평 모든업종 가능
건물 28억
• 광주·장성권 토지 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한일지도판매(주)
☎(예약)529-1409 상담010-2466-1409 (전화)527-6310, 011-9433-6310
(광주시 동구 지산동 373-8 법원정문앞)
2008최신 합본(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함평)
지번도 책 판매중
안녕하십니까? 한일지도(주) 20주년을 맞이하여
합본책을 제작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합본책은?
① 광주 광역시 전지역 재정비·도시계획·용도지역·하남4공단 경계수록 최신 지적, 신규APT 수록
② 나주 나주시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2차 해제수록, 나주송월동 스포츠타운 수록, 송월택지개발지구 가지번수록 나주 촌곡리 남양유업수록, 혁신도시 최종안 수록, 혁신도시로 연결된 도시계획 수록
③ 화순 화순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수록 최신지적 수록
④ 장성 장성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개발예정인 장성 남면에 그린벨트 1차,2차 해제수록 나노단지 지정, 배치도 수록
⑤ 담양 담양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2차 수록, 최신지적 수록, 보촌지구 수록
⑥ 함평 함평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해제 수록, 최신지적 수록
최신 (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함평) 지번도 책 판매중 (6개 사군 1권에 수록) 1/7500
한일지도판매(주) 광주(062)529-1409 527-6310
정가:100만원→특별판매가:50만원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장성,담양,화순,나주책은 그린벨트 해제된 책은 없습니다.
이외 더 많은 부분들이 있으나 서면으로는 다 알릴수가 없어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신 분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판매개시 한달동안 전화 예약하신분에 한하여 힘을 덜어드리기 위해 50% 세일을 단행하였으니 좋은 기회를 이용하세요.
【영업사원 ○○명 모집】

부자되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 표 : 김 갑 룡
☎(代)655-8249, 핸 011-9618-9691
1. 광제빌딩상가 임대(신축)
1)상무지구 최고의 상권 (치평동 1256-6)
2)상무역에서 5분거리(이바돔식당옆)
3)전업종 가능
4)각층(1~5층) 528㎡(160평)
2. 상가건물 매매 (동구 지산동)
1) 대지 : 105 P 건평 258 P
2) 지하 1층 지상 5층
3) 변호사 사무실, 병원 적합
4) 매매가 : 상담후 결정
3. 신축원룸 (급매)
1) 위치 : 서구 금호동 화개초등 부근
2) 구조 : 2,3층-원룸 4개 · 투룸 2개 · 쓰리룸 2개 5층-인집 47 P
3) 융자금액 : 6천만원 보증금 7천3백만원 월세 : 259만원 인집 : 공실 47 P
4) 매매가 : 상담후 결정
4. 급매 (아파트)
1) 동구 학동 규모 : 71.44 P
2) 매매가 : 상담후 결정
5. 급 매(땅)
1) 곡성군 삼기면 임야 관리지역 (경관좋음)
2) 면적:88,069㎡(26,640평)
3) 전원주택, 수련원 적합. 도로접함. 경사도평판함
4) 매매가 상담후 결정
6.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 권리 분석